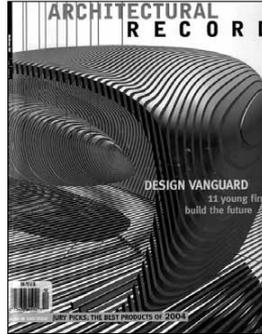


Architectural Record

2004년 12월

작년 건축계의 새로운 경향을 잘 보여준 11인의 건축가와 작품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건물 타입별 연구 코너에서는 대학건축물의 최신 동향을 살펴보고 있다.



■ 디자인 뱅가드 2004

철학계와 예술계에 지극히 큰 영향을 미치던 1968 세대의 시대가 자코 데리자의 죽음과 함께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 특히 건축가들이 먼저 명명한 포스트모더니즘은 주요한 철학적 논쟁의 장으로 기능했으며, 건축계는 철학 없이는 작동할 수 없는 영역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 컴퓨터와 네트워크 테크놀로지가 급속한 발달을 하면서 데리다의 철학 대신 들뢰즈의 '폴드(Fold)'가 주목을 끌었으며, 설계에 사용된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건축 프로그램만큼이나 주요한 역할을 한 유체 형태의 건축 작품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기존의 기계적 패러다임은 생물학적 모델에 의해 대체되었는데, 이를 단순히 새로운 형태의 매혹으로 읽는 것은 옳지 못하다. 중요한 것은 자연과 인공물을 구분하는 하부구조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며, 이러한 사고는 최근 생물학과 정보 체계가 근본적으로 같은 구조와 작동 논리를 갖췄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총 6개국에서 선발된 올해의 디자인 뱅가드 건축가 11인은 모더니즘의 간결함과 직선체계를 단순히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환경과 조건에 맞춰 이를 도입하고 변형하였다. 그들은 간결함 대신 복잡성, 수직성 대신 수평성, 불연속 대신 연속성, 고정된 구조 대신 색다른 구조 시스템, 달

린 체계 대신 열린 체계를 지향하며, 명확한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지 않지만 현대의 비판적 논쟁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무엇보다도 소프트웨어에 의해 제어되는 건축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건축을 위해 소프트웨어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앞 세대와 비교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조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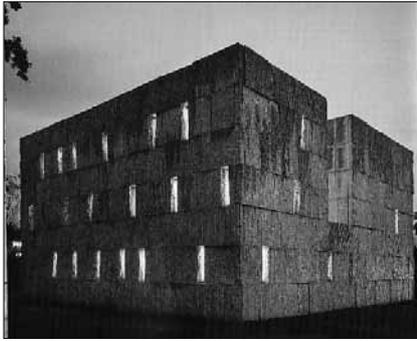
조병수는 자연 지형과 건축 형태를 매우 섬세하게 연계시키고 있어 건물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 경지에 다다랐다.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던 미국 몬타나 주의 공장, 농장 건물들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드러나는 투박함은 현대성과 원시성의 대비를 추구한 결과다. 사무실 내에 시공부를 둬으로써 건축이 실제로 지어지는 과정에도 직접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정방형의 콘크리트 박스를 먼저 지은 후 개구부를 뚫으로써 디자인에 들어가는 '시공후 설계' 프로세스를 실험하고 있기도 하다.



한국의 조병수

스페인의 Anton Garcia-Abril

사무실 내에 시공팀을 둬으로써 새로운 재료와 구조, 공법을 실험하는 자유를 확보하고 있다는 Garcia-Abril의 첫 작품은 스페인 Santiago de Compostela의 음악교육센터였다. 화강석의 육중한 입면을 가진 이 건물은 고대의 석공 기술을 사용하여 매우 강한 텍스처를 보여주고 있으며, 원시적인 느낌은 불규칙적으로 난 수직창들로부터 새나오는 온화한 불빛에 의해 더욱 강화되고 있



스페인의 Anton Garcia-Abril

다. 그는 또한 수평의 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해 도입된 직각체계는 구조적으로 가장 불안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삼각형 구조 시스템을 실험 중이기도 하다.

그 외의 건축가들로 미국 뉴욕의 nARCHITECTS, 미국 뉴욕의 Christoff:Finio Architecture,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Patterns, 미국 매서츄세츠의 dECOi, 미국 뉴욕의 Contemporary Architecture Practice, 일본의 Masaki Endoh/EDH, 일본의 Architecton, 칠레의 Alejandro Aravena, 영국 런던의 Plasma Studio가 소개되어 있다.

■ 빌딩타입연구 - 대학시설건물

미국에서는 대학건물의 신축과 증개축이 여전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리 많지 않은 예산의 한계 속에서, 인터넷과 전자문화에 심취한 학생들의 변화된 습성과 생활 패턴을 고려하여 설계된 최근의 우수 사례로 Charles Rose Architects의 미국 매서츄세츠 Shapiro Campus Center, Jonathan Levi Architects의 미국 매서츄세츠 29 Garden Street, Miller/Hull Partnership의 미국 워싱턴 Olympic College Poulsbo, Einhorn Yaffee Prescott and Helfand Architecture의 미국 펜실바니아 Unified Science Center, Anshen+Allen Los Angeles의 미국 캘리포니아 Santa Monica College Library 등이 소개되어 있다.

■ 기타

2003년 초 Rem Koolhaas의 계획안이 취소된 후 현재 Renzo Piano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미국 뉴욕 Whitney Museum 증축안 소식, Daniel Libeskind의 첫 번째 중국 프로젝트인 City University of Hong Kong 멀티미디어관, 정부의 무관심 속에 파괴되어 가는 러시아의 건축 유산, 쿠바의 근대건축에 대한 소개, Carlo Scarpa가 리노베이션한 Castelvecchio 정원에서 열린 Peter Eisenman 전시회 소식, 2004년도 Aga Khan상 수상 작품 소개가 게재되어 있다. 아울러 신간 소개에서는 9/11 대지에 대한 새 프로젝트의 진행 방식과 그 사회, 정치적 맥락을 분석한 Paul Goldberger의 Up From Zero, 그 건축가로 선정된 Daniel Libeskind가 자신의 작품과 건축 철학을 설명한 Breaking Ground: Adventures in Life and Architecture 등 뉴욕의 월드트레이드센터 프로젝트와 관련된 책들을 분석하였다.

Architectural Review

2004년 12월

이번 호는 올 해의 ar+d 건축상 수상작 18 작품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어느 대도시보다 급격한 도시



적 변화를 맞으며 현대건축의 전시장으로 변모한 상하이의 현황을 다루었다.

■ ar+d 건축상

올해로 6번째를 맞는 ar+d 건축상의 수상작들을 소개한다. 수상작들은 여러나라의 작품들을 포함하며 사회, 지형, 기후 등에 비범한 접근으로 대응한다.

Atelier Tekuto의 동경, 주택

동경 외곽의 조용한 주택지에 위치한 Cell Brick 주택은 작은 사각형의 패턴이 외피를 덮고 있다. 어떤 것이 창문이고 그렇지 않은 것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는다. 원경에서 보면 이 건물이 마치 교통관련 건물로도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주택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면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인다. 건물은 스틸로만 지어진 것인데 건축가는 이 시



Atelier Tekuto의 동경, 주택

시스템을 'void masonry'라고 부른다. 가로 900mm, 세로 450mm, 깊이 300mm 크기의 Box를 쌓아 용접한 것인데 박스의 안쪽은 실내에서 자연스럽게 수납공간을 형성한다. 바닥면적 85㎡, 4개층으로 이루어진 이 주택은 디자인이와 그의 20대 자녀를 위한 집이다. 1층은 2개층 높이의 공간으로 부엌, 거실 등이 위치하며, 그 공간의 중간에 투명한 화장실 박스가 걸려있다. 최상부에는 2개의 침실과 로프트가 있으며, 보이드된 공간을 가로지르는 나선형계단을 통해 다다를 수 있다. 철제 외피의 처리는 나사에서 개발한 세라믹계 물질의 코팅에 의해 실현이 가능했다. 그 코팅은 열 전도성을 낮추는 것으로 이 코팅을 적용하지 않은 이전의 철제 주택은 태양광에 노출된 후 매우 뜨거워져서 손을 댈 수 없을 정도였다. 반면에 코팅된 표면은 이러한 점이 많이 개선되었다.

Daniel Bonilla의 콜롬비아 La Calera 교회

Daniel Binilla는 교회를 확장시키는 재주를 가졌다. 2002년 12월 AR에 소개되었던 Los Nogales School Chapel에서 그는 잔디밭에 면해있는 벽이 뒤로 들어올려지면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 수법은 La Calera 교회에서도 적용되었다. 초원의 언덕배기에 지어진 이 교회는 얇은 판석을 포개서 만든 벽과 그 벽 사이에 걸려있는 종이 정면을 이룬다. 그 벽 안쪽에는 건축가가 고백의 정원이라 이름 붙인 마당이 자리잡고 있다. 교회의 남측은 납작한 목재 막대기를 촘촘하게 붙여 만든 막이 처진 유리벽이 서있다.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빛은 걸려져서



Daniel Bonilla의 콜롬비아 La Calera 교회

유입되어 마치 스테인드 글라스에 의해 변화하는 색깔을 가진 공간처럼 서서히 공간을 변화시킨다. 목재 막과 유리창은 슬라이딩 방식으로 열려 고백의 정원까지 예배당을 확장시킨다. 페스티발이 열릴 때에는 예배당의 측면도 열려서 서측 초지의 경사면에 앉아서도 재단을 보고 예배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그 외의 ar+d 건축상 수상작으로 PLOT의 덴마크 코펜하겐 Amager 청소년회관, Architecture Workshop의 뉴질랜드 Central Otago Gibbston Valley의 와인저장소, Jesus Aparicio Guisado, Hector Fernandez-Elorza의 스페인 마드리드 자료보관소가 소개되어 있으며, 이어 최우수 작품으로 Marco Castelletti Architetto의 이탈리아 Cesano Maderno 도심재개발 계획, Manuel Clavel Rojo의 스페인 Murcia 묘소, Ofis Arhitekti의 슬로베니아 Ljubljana 박물관 증축안, 우수 작품으로 The Skyisbeautiful Architecture의 베트남 Luong Son 학교, Deca Architecture의 그리스 Antiparos 주택, Office dA의 미국 매서츄세츠 보스턴 영혼회관, Eightyseven의 스페인 Sant Miquel De Cruilles 정자, Woha Designs의 싱가포르 Fenestration System, Marco Castelletti Architetto의 이탈리아 꼬모 Segriho 호수 목욕탕, Carl Fredrik Svenstedt의 전등 디자인, Smarch의 스위스 베른 Worb 기차역, David Mc Dowell의 아일랜드 더블린 Malahide 주택, Tezuka Architects의 일본 니이가타 자연사박물관, Turenscape의 중국 Duijiangyan City 조경계획이 게재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입선작품으로 Abramson Teiger Architects의 미국 캘리포니아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Encino, 2B Architectes의 스페인 마드리드 Arco 스위스 파빌리온, Berlin, Germany Die Baupiloten의 독일 베를린 학교 리노베이션을 다루고 있다.(번역 / 최원준)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 강동구건축사회/486-7475 · 강북구건축사회/903-2030 · 강서구건축사회/661-6999 · 관악구건축사회/877-4844 ·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 구로구건축사회/864-5828 · 금천구건축사회/859-1588 · 노원구건축사회/937-1100 · 도봉구건축사회/990-8720 · 동대문구건축사회/967-6052 · 동작구건축사회/815-3026 · 마포구건축사회/333-6781 · 서대문구건축사회/338-5552 · 서초구건축사회/3474-6100 · 성동구건축사회/292-5855 · 성북구건축사회/922-5117 · 송파구건축사회/423-9158 · 양천구건축사회/694-8040 · 영등포구건축사회/632-2143 · 용산구건축사회/717-6607 · 은평구건축사회/389-1486 · 종로구건축사회/725-3914 · 중구건축사회/231-5748 · 중랑구건축사회/437-3900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3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66-5651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30
- 고양지역건축사회/(031)963-8902 · 광명건축사회/(02)684-5845 · 동부지역건축사회/(031)563-2337 · 부천시지역건축사회/(032)664-1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1)7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1)241-7987~8 · 시흥지역건축사회/(031)318-6713 · 안산건축사회/(031)480-9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31)449-2698 · 북부지역건축사회/(031)876-0458 · 이천지역건축사회/(031)635-0545 · 파주지역건축사회/(031)941-2410 · 평택지역건축사회/(031)657-6149 · 오산 · 화성지역건축사회/(031)375-8648 · 용인지역건축사회/(031)336-0140 · 광주지역건축사회/(031)767-2204
- 강원도건축사회/(033)254-2442
- 강릉지역건축사회/(033)652-0126 · 삼척지역건축사회/(033)531-8708 · 속초지역건축사회/(033)633-5080 · 영월지역건축사회/(033)374-2659 · 원주지역건축사회/(033)743-7290 · 춘천지역건축사회/(033)254-2442
- 충청북도건축사회/(043)223-3084~6
- 청주지역건축사회/(043)223-3084 · 옥천지역건축사회/(043)732-5752 · 제천지역건축사회/(043)643-3588 · 충주지역건축사회/(043)851-1587 · 음성지역건축사회/(043)873-0160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2-4088
- 공주지역건축사회/(041)854-3355 · 보령지역건축사회/(041)934-3367 · 백제지역건축사회/(041)835-2217 · 서산지역건축사회/(041)681-4295 · 천안지역건축사회/(041)551-4551 · 홍성지역건축사회/(041)632-2755 · 아산건축사회/(041)532-9200
- 전라북도건축사회/(063)251-6040
- 군산지역건축사회/(063)452-3815 · 남원지역건축사회/(063)631-2223 · 익산지역건축사회/(063)852-3796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567
- 목포지역건축사회/(061)2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1)743-2457 · 여수지역건축사회/(061)652-7023 · 나주지역건축사회/(061)365-6151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 경산지역건축사회/(053)812-6721 · 경주지역건축사회/(061)726-6877~8 · 구미지역건축사회/(054)451-15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432-6688 · 문경지역건축사회/(054)553-1412 · 상주지역건축사회/(054)535-8975 · 안동지역건축사회/(054)853-0244 · 영주지역건축사회/(054)634-5560 · 영천지역건축사회/(054)334-8256 · 칠곡지역건축사회/(054)974-7025 · 포항지역건축사회/(054)244-6029 · 군위, 의성지역건축사회/(054)983-8608 · 청도지역건축사회/(054)373-2332
- 경상남도건축사회/(055)246-4530~1
- 거제지역건축사회/(055)635-6870 · 거창지역건축사회/(055)943-6090 · 김해지역건축사회/(055)334-6644 · 마창지역건축사회/(055)245-3737 · 밀양지역건축사회/(055)355-1323 · 사천지역건축사회/(055)833-9779 · 양산시건축사회/(055)384-3050 · 진주지역건축사회/(055)741-6403 · 진해지역건축사회/(055)544-7744 · 통영지역건축사회/(055)641-4530 · 하동지역건축사회/(059)883-4612
-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33-5501